

적을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를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마스 풀러



적을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를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을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를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을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를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적을 용서해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를 신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